

## 내란 키맨 '노상원' HID 등 OB조직 운영 및 인사개입 상황

- 정보사 내 노상원 라인 구축하여, 별도 2수사단 꾸려 컨트롤 조직 운영
- 장군 인사개입으로 김용현과 함께 사전 모의하고, 인적 영향력 행사

- 12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(단장:추미애)은 12.3 내란사건의 기획자로 알려진 노상원 (전)정보사령관에 대한 추가 제보를 확인했다고 밝히고, 공조수사본부는 관련해서 즉각 수사해야된다고 주장하였다.
- 진상조사단에 입수된 제보에 따르면, 노상원은 일명 ‘돼지부대’ 로 알려진 HID와 암살조 등 북파공작부대를 사실상 조정통제 하며, 계엄시 합동수사단 내 제2수사단을 꾸려서 컨트롤 하는 조직을 만들었다고 한다. 심문단 김○○ 대령, 사업단장 정○○ 대령, 정보부 구○○ 준장 등 구성하여 노상원 라인을 구축하였고, 이 조직을 통해 이른바 OB를 이끌었다고 한다. 이는 원래 없었던 임시편제로 계엄을 사전 준비한 정황으로 보인다.
- 노상원은 사이버사 댓글 사건시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된 바 있는 전직 조사본부 수사단장(예.김○○ 대령)과도 자주 소통 접촉하면서, 일부 조사본부 OB에게도 역할을 부여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.
- 또한, 노상원은 장군 인사개입으로 김용현과 함께 사전 모의하고, 인적 영향력 행사를 통해 주요인원을 포섭한 정황도 있다고 한다. 내부제보에 따르면, 노상원과 근무연 등 친분이 있는 방○○ 준장은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이라는 임시직제로 있다가

지난 10월부터는 소장급 장성 보직인 통합기획관을 만들어 보직했다고 한다. 또한, 배○○ 준장(진)은 김용현 인사청문회 TF에 참여시키고, 최근 준장으로 진급시켜서 연합사로 보직 발령 냈다고 한다.

○ 이에 추미애 진상조사단장은 “12.3 내란의 비선실세이자 기획자로 알려진 노상원에 대한 구체적인 개입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. 공조수사본부는 즉각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내란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하다.” 고 밝혔다. 끝

※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 추미애 단장, 박범계·서영교 부단장, 이소영·박선원 간사, 강유정 대변인, 부승찬·양부남·이건태·이상식·김태성·신현성·노승일 위원

※ 문의 : 추미애 의원실 02-784-1626

2024.12.17.(화)

더불어  
**민주당**